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10월 28일(수) 제 3425호

완산수영장 샤워부스 자리 맡기 '몸살'

개인 물품으로 자리 선점 지인 양보
"항의하면 위협" 이용객 간 마찰
반복 민원에도 제자리…부실 논란
강습·자유수영 분산 등 개선 시급



완산수영장 새벽 이용객 갈등 심화

전주시 완산수영장 일부 이용객의 샤워부스 자리 맡기로 새벽 수영 강습 회원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시설 측의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전주완산수영장 전경. <사진=전주시설공단>

전주시 완산수영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의 상습적인 샤워부스 자리 맡아주기 행위로 새벽 수영 강습반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영장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전 6시10분 정규 강습반에 등록한 A씨는 매일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집을 나선다. 강습 시작 20분 전 수영장에 도착하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수영장 현관 앞에는 이미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오전 6시 개장과 동시에 이용객들이 탈의실과 샤워실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진다.

문제는 일부 이용객들이 자신이 사용할 샤워부스뿐 아니라 주변 샤워부스까지 수영바구니와 개인 물품 등을 올려놓고 자리를 선점한다는 점이다. 이후 늦게 도착하는 지인들에게 해당 자리를 넘겨주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정해진 시간에 강습을 받아야 하는 회원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강습에 참여해야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없는 샤워부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A씨는 "먼저 왔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는 샤워기까지 물건을 놓아두고 나중에 오는 지인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자리를 맡아 지인에게 넘겨주는 일부 고령 이용객들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거나 주변 지인들이 몰려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심한 위압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영장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건강을 위해 새벽부터 운동하러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영장 측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A씨에 따르면 수영장 측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내일부터 관리자를 입장시켜 자리 맡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샤워부스 선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이용객 간 감정싸움을 넘어 물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순한 이용객 간 다툼으로 치부하기보다 공공시설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영장 측이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강습을 받아야 하는 정규 강습반과 상대적으로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한 자유수영·수중걷기 이용객의 입장시간을 분산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는 강습반과 자유수영·수중걷기 이용객의 이용시간에 차이를 둬 혼잡과 갈등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산수영장 역시 시간대별 이용객 집중도를 분석해 입장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 물품을 이용한 샤워부스 선점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수영장은 특정 이용객이나 친목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동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방치하지 않는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地選 예비후보 직계비속 고발

미신고 개인계좌 사용 혐의
문자 전송 비용 2580만원
회계책임자 거치지 않고 지출
"선거 종료 후에도 불법 엄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A씨를 10월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A씨는 문자 전송 비용 2,58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고, ▲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본인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와 남원시가 27일 남원 반다비체육센터 일원서 공동 진행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남원시>

전북도·남원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9개기관 220여명·장비 55대 투입
체육관 화재·산불 복합재난 가정
재난약자 대피·민간기관 협력 점검
현장·상황실 실시간 연계 체계 검증

전북도는 27일 남원시와 공동으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한 실전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남원 반다비체육센터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훈련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한 토론훈련을 연계해 동시에 진행됐다. 반다비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어린이교통공원과 산림으로 번지고, 강풍을 타고 한울학교 인근까지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에는 도와 남원시,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관·단체에서 2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소방헬기와 굴삭기 등 장비 55대가 투입됐다.

참여기관들은 재난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했다.

주요 훈련은 ▲사고 접수 및 상황 전파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단계별 대응 토론 ▲현장 인명구조·재난약자 대피·산불 확산 저지 ▲수습·복구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지난해 훈련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재난약자 대피 지원과 민간기관 참여, 재난관리자원 지원체계 점검에 중점을 뒀다.

전담 지원조를 편성하고 보조장비를 활용해 재난약자 대피를 지원했으며, 적십자사·도시가스·한국전력공사 등 민간기관의 토론훈련 참여를 확대했다. 도 재난관리자원센터의 자원 지원 절차도 실제로 점검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훈련 중 돌발상황을 부여해 문제해결형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장과 상황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직접 훈련 현장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훈련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10년간 139억 지원

전국 최초 도입 3,100농가 부담 완화
양파 113억원 최다‥8개 품목 지원
올해 528농가에 43억원 지급
정부 제도 연계 농가 경영안전 강화

전북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난 10년간 총 3,100농가에 139억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는 시장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농산물의 주 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보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2016년 가을배추, 가을무 2개품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가을무·가을배추·양파·마늘·노지감자·건고추·생강·대파 등 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품목별 누적 지원 실적은 양파가 1,787농가에 11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늘 338농가 14억 원, 노지감자 484농가 4억 원, 가을무 156농가 4억 원, 생강 128농가 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2026년에도 양파·마늘·건고추·노지감자 등 4개 품목을 계통출하한 528농가에 총 43억 원을 지급했다.

전북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정부 차원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은 여야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앞으로 정부 농산물가격안정제와 도 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제도와의 지원 범위를 고려해 품목을 조정·확대하는 한편,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부 제도와 연계해 지원이 닿지 않는 품목을 최대한 줄이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北도발 단호히 대응…대화는 열어둬야"

"남북관계 위기 가능성 낮춰 경제 불확실성 줄여야"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남북관계'와 관련, "군사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장병3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크게 다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안보환경과 국제정세 변화도 있고, 긴장감도 높아지는 것 같다"며 "정부가 군사 분계선을 확인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변화는 상당히 큰 틀의 변화가 바닥에 깔려 있다"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넓혀가고 있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일각에선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입지, 전술적 운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넓어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 경제의 두 가지를 살려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근 호조를 보이는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道·대통령비서실, 햇빛소득마을 지원·제도개선 모색

익산 여산면 사업 현장 방문
부지 확보·자금 조달 등 건의 청취
ESS·주민 자부담 완화 등 지원 논의
전북 햇빛소득마을 76곳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27일 고정삼 경제부지사와 최정호 익산시장, 대통령비서실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이유진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행정안전부 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 등이 익산시 여산면 햇빛소득마을을 둘러본 뒤 익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지인 여산면 옥금저수지에서는 상옥·하옥·사월·남산·석교 등 다섯 마을 주민이 공동 설립한 '제남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이 990kW 규모의 수상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등 주민 건의를 청취했다.

익산시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과 지원 계획을 소개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부지 확보 ▲주민 자부담금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 늘고 있다. 올해 1차 공모에는 24개 마을이 신청해 17곳이, 2차 공모에는 74개 마을이 신청해 59곳이 선정되면서 도내 12개 시군에서 모두 76개 마을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정마을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부지 확보와 계통 연계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오는 30일 마감하는 3차 공모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새로운 소득모델"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선정마을이 흔들림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의겸, 해저통신망 인프라 육성 특별법 대표발의

해저통신케이블 시설 특구 지정
인허가 간소화·연결 거점 다변화


김의겸 의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해저통신케이블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저통신케이블은 바다 밑으로 국가와 국가를 잇는 데이터의 길이고, 해외 인터넷 접속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국제 금융 거래까지 국경을 넘는 데이터 대부분이 이 길을 따라 오간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고받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저통신케이블은 도로나 항만처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서도 해저통신케이블은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이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AI데이터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해외와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국제 통신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해저통신케이블을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 체계는 아직 없다. 설치하려면 여러 법률의 인허가를 하나하나 따로 받아야 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이 되풀이되지만 이를 조정할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국내 해저통신케이블은 부산·경남권에 집중돼 있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 통신망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

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하나의 법 체계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저통신케이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담아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상생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연결 거점을 다변화하고 국가 통신망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AI데이터센터 논의는 전력 확보에 집중돼 있지만, AI데이터센터는 본질적으로 통신시설"이라며 "아무리 전력을 확보해도 세계와 연결되는 통신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저통신케이블을 더 이상 개별 사업자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삼아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제조 현장에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피지컬AI 국가 전략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새만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피지컬AI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박지원 "새만금 헴프 육성 위해 식약처 규제 개혁 나서야"

CBD 의약품 원료 전량 수입 의존
세계 CBD 시장 106조 원 규모 전망
경북 규제자유특구 무사고 실증…
국내 생산·공급 기반 확충대책 시급


박지원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식약처가 입증한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의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세계 CBD(칸나비디올) 시장이 2023년 약 29조 원에서 2030년에는 106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해외 국가들은 이미 면허 제도와 안전기준을 도입해 헴프의 산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직접 확인한 무사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소극적인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용 원료의 국내 공급 기반을 다지고,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적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변동, 불법 유출, 국제협약 정합성 등을 우려하며 CBD 성분 활용을 의약품 원료 중심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정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난이나 유출 등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채 대마 재배와 CBD 의약품 개발 실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미량 칸나비노이드 효능 연구를 위해 특구가 추가 지정되기도 해, 식약처 스스로 안전관리 속에서 '무사고 실증'을 확인한 셈이다.

현재 국내 환자들에게 쓰이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와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관련 제정안들에는 재배지 안전관리, 출하 전 성분 검사, 폐기 보고, CCTV 및 이력관리 등 강력한 안전장치들이 이미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제9회 '1593 전주별시' 전주한옥마을서 재현

오는 11월 21일 개최
300명 선착순 사전 신청



'1593 전주별시' 2025년 행사사진 <사진=전주시>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기 위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전주에서 치러졌던 특별 과거시험인 '전주별시(別試)'가 올해도 전주한옥마을에서 재현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21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제9회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별시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이듬해인 1593년 세자 광해가 분조(分朝, 임진왜란으로 임시 설치한 왕세자가 다스리는 조정)해 전주에서 직접 시행한 특별 과거시험이다. 당시 전주별시를 통해 문과 9명과 무과 1000여 명을 선발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시는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전주의 기상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1593 전주별시'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재현행사는 △과거시험(사생대회, 택견, 한시(漢詩)) △방방례(시상식) △급제자 유가행렬(遊街行列) △사은숙배(謝恩肅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사생대회는 초등학교 저·고학년 부문으로 나뉘어 행사 당일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현장 접수하면 된다. 사전 신청은 선착순 300명까지 가능하다.

택견은 행사 당일 개인전(애기부, 초등부, 중등부 남·여, 고등부 남, 일반부 남·여) 7개 부문으로 치러지며, 택견회가 인정하는 동호인으로서 대한체육회 동호인등록 시스템에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완료한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어 한시 지상백일장의 올해 시제는 '탐방전라감영(探訪全羅監營)'이고, 압운은 파(坡), 다(多), 파(波), 화(和), 아(哦)이다. 참여 희망자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에서 칠언율시(七言律詩) 형식의 원고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원고는 사전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시상식이 거행된다.

모든 과거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과거급제자에 대한 시상식인 방방례(放榜禮)가 진행된다. 급제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어사화가 수여되며, 부상으로 1박 2일 가족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사생대회 입상작은 내년 중 특별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시상식 이후에는 과거급제자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선배, 친족을 방문하는 전통인 '유가행렬(遊街行列)'이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시작해 은행로, 태조로, 경기전으로 이어진다.

급제자들이 경기전에 도착하면 왕(태조어진)에게 과거 급제를 알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은숙배례(謝恩肅拜禮)'가 행해진다.

이외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공예 체험 △전통간식 만들기 △전통차(茶) 즐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한시 원고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택견대회와 사생대회 참여 신청은 11월 13일까지다.

/정소민 기자

제74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국가안보 의식 고취
나라사랑 정신 되새겨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범준)는 27일 중화산동 연가에서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범준 전주시 재향군인회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을 비롯한 향군 회원 및 내외빈 180여 명이 참석해 재향군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안보 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모범 향군 회원들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김범준 전주시재향군인회장은 "국가안보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신해 온 향군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념식이 향군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화합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안보의식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2026 전주 기록 사진 전시회 개최

'기록을 하는 사람, 당신은' 주제



빛바랜 사진 속에 간직된 전주의 옛 풍경과 시민 개개인의 정겨운 추억을 공유하고, 기록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27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완산구 경기전길 67)에서 '2026 전주 기록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 행사는 전시 첫날인 27일 오후 2시 하얀양옥집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이태영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장, 기록물 기증자, 공모전 입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록을 하는 사람, 당신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주의 옛 모습과 시민들의 삶이 담긴 사진과 생활박물류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특히 시민이 직접 모으고 기증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감형 전시로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먼저 파트1(장소의 기억)에서는 풍남문과 전동성당, 경기전, 오목대, 향교, 한벽당 등 전주의 대표 명소를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행하듯 둘러볼 수 있다.

파트2(여행의 기억)에서는 1960~1990년대 승차권·입장권 등 '제15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출품된 주요 기록물과 더불어 우아동 돌화병, 화로, 공중전화기 등 옛 생활용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파트3(전주와 나의 특별한 기억)에서는 전주 추억 사진 공모 '그때 그리고 지금' 전주 다시 찍기를 통해 10년 이상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두 장의 사진과 사연을 엿볼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사랑상품권 온라인 충전시간 오후 3시로 변경

온라인 충전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오프라인 충전 가능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충전 시간이 오는 11월부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시간대로 바뀐다.

전주시는 전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충전시간을 기존 매월 1일(1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다가오는 평일) 00시 15분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고령층 등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충전시간도 기존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온라인 충전 다음 날 오전 9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1월 온라인 충전은 오는 2일 오후 3시, 오프라인 충전은 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11월 발행 규모는 총 63억 원(온라인 58억 원, 오프라인 5억 원)으로 1인당 월 30만 원 및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전용 앱에서, 오프라인은 전주시내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전주사랑상품권 충전시간 변경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설된 시민소통플랫폼인 '쌍방향 소통공간(open.jeonju.go.kr)'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이다.

이에 쌍방향 소통공간에서 활발히 제기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반영은 물론, 운영시스템 안정화까지 고려해 충전시간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충전시간 변경을 통해 매달 초 자정 무렵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 최대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 페스티벌 기간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기존 10%에 5%를 추가해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캐시백 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추가 캐시백 지급은 조기 종료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충전 시간 변경은 시민들의 실제 이용 여건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주사랑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비 지원으로 마련된 추가 캐시백 혜택이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웃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배움이 나눔으로' 평생학습 기부 잇따라

금감원 전북지원, 도서 기부
50+ 낭독 커뮤니티 오디오북 기부



전주시가 배움과 나눔이 선순환하는 평생학습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7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50+ 낭독 커뮤니티가 각각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뜻깊은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들을 위한 도서 263권을 전달했다.

이번 도서 전달식은 시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지난달 17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번째 결실이다.

이날 전달된 도서 중 '외국인 금융매뉴얼'(8개 언어, 20세트, 총 160권)은 14개 시립도서관과 전주시가족센터 등 다문화·외국인 시설 5곳에 배치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의 금융 생활을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보유 장서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의 저서인 금융전문도서(4권) 등 총 103권은 전주 청년들의 공유공간인 청년이음전주 공유라운지에 비치돼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전북점자도서관 열린점자작은도서관에서 '50+ 낭독 커뮤니티 오디오북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50+ 어른학교 낭독반과 낭독 커뮤니티 회원들은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기부해 제작한 오디오북 7권을 기증했다.

기증된 오디오북은 △50+ 어른학교 낭독반 10기가 제작한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 △낭독 커뮤니티 '아보스'가 참여한 조정래의 '황금종이' △'소리책'이 제작한 권혜영의 '애정망상', 구작가의 '그래도 괜찮은 하루', MBC라디오 여성시대의 '우리 삶이 시가 될 때', 전성현의 '이별 박물관', 소운의 '여름으로 지어진 곳' 등 총 7권이다.

시는 이러한 기증 행사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사회 공헌과 더불어 시민이 직접 평생학습을 통해 쌓은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재능 기부가 함께 이뤄진 만큼 평생학습을 통한 나눔 문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앞으로도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를 적극 발굴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눔사회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2027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전주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2027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주택은 총 4만842호로, 시는 이 중 1만613호(완산구 5665호, 덕진구 4948호)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욱이 중점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각 동에 배치된 세무공무원을 활용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구조, 용도, 토지의 형상 및 이용 상황 등 주택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항목을 확인 및 실측할 예정이다.

조사 완료 후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주택시장의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 기준 및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조사원의 현지 조사 방문 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장기요양서비스 발전 위한 소통 나서

간담회 통해 현장 중심 소통

전주시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7일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북부지사 관계자와 장기요양기관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기관 현지조사, 급여비용 청구 등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개선 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 원활한 업무 추진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행정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지속 공유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상 혼선을 줄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인권특강 '죽음이 말해주는 생명과 인권'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앞두고 전주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시청 강당에서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6년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인권선언일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해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특히 법의학자인 이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죽음이 말해주는 생명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이호 교수는 법의학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과 죽음, 인간의 존엄과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일상에서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소통의 시간도 진행된다.

이번 인권특강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인권특강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전북 가계 살림살이 '팍팍'… 지출·물가 ↑

10월 소비자심리지수 105.9… 경기판단 4p 취업전망 3p 하락

전북지역 가계의 살림살이에 부담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와 고용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소득 증가 전망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소비지출과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형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출 부담까지 커질 경우 지역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북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9로 전월 106.0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 105.4보다는 높았지만 지역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와 생활형편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8에서 84로 4포인트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지수도 97에서 94로 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 역시 89에서 86으로 낮아졌다. 현재 경기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 회복과 고용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 약화된 것이다.

가계 재정상황도 녹록지 않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4, 생활형편전망지수는 97로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가계수입전망지수도 99로 전월과 같아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개선되지 못했다.

반면 소비지출전망지수는 107에서 109로 2포인트 상승했다.

의류비가 5포인트, 외식비가 3포인트 올랐으며 의료·보건비와 교통·통신비, 주거비, 여행비도 각각 2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전망은 정체된 상황에서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출 증가를 예상하는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1에서 142로 상승한 반면 임금수준전망지수는 125에서 123으로 하락했다.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는 약해져 가계의 구매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흐름이다.

저축 여건도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가계저축지수는 93에서 92로 하락했고 가계저축전망지수는 96에 머물렀다. 가계수입과 저축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지출 증가가 이어질 경우 가계의 재정적 여유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경기·고용 전망 악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역 가계의 부담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전북지역 6개 시와 인접 읍·면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70가구가 응답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완주군>

고산농협,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원

전북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전북농협 농촌현장봉사단과 연계해 관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촌현장봉사단은 대상 가정을 방문해 노후된 벽지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족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전북농협과 고산농협이 협력해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손병철 조합장은 "전북농협 농촌현장봉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산농협은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북농협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취약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농협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조달청 '맞춤형 공공조달 길잡이' 지원

농식품 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입 중점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종화)은 농식품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공공조달 길잡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컨설팅과 연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호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 주관의 '2026년 공공·단체급식 품평회'와 협력해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품평회는 학교·군부대·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시장 특성을 반영했으며, 전북지방조달청은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을 잇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제품별 직접 선택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은 '군 급식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중심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실행 경로를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 기업 50개사와 급식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해 1:1 상담과 제품 검증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조달청의 전문적인 MAS 제도 가이드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제품 판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판로확보 및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직접 진입이라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화 청장은 "농식품 기업이 공공조달이라는 낯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수한 농식품 기업들이 공공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지방조달청>

농진청, 과수 동해 막는 전용 페인트 개발

내년 전북 농가 보급 추진 피해 예방 효과 검증 과제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로 발생하는 과수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가 개발돼 내년부터 전북지역 과수농가에도 보급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 시범사업 규모가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실제 농가 수혜 범위와 피해 예방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KCC와 공동 개발한 과수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의 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내년부터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신규 지역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출시된 이 제품은 겨울철 낮 동안 햇빛을 반사해 나무줄기의 과도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줄기 갈라짐과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시험 결과 태양광 반사율은 92.1%로 나타났다.

낮 동안 무처리 나무의 줄기 온도가 13.1℃ 상승한 반면, 전용 페인트를 바른 나무는 2.6~3.5℃ 상승하는 데 그쳐 온도 상승 억제 효과를 보였다.

올해 9월 경남 밀양과 거창의 사과 과수원 5곳에서 실시한 현장 검증에서도 일반 페인트보다 도막 균열 발생률이 낮았다.

줄기 부위의 심한 균열 발생률은 일반 페인트 64%에서 전용 페인트 29%로 35%포인트 감소했고, 접목 부위 역시 83%에서 49%로 34%포인트 낮아졌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강원과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10개소 10ha에서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북 등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되 전체 사업 규모는 10개소 10ha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실제 배정 면적과 대상 시군, 농가 지원 규모는 향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수·무주 등 도내 주요 과수 재배지역에서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고 농가의 도포 비용 부담을 고려한 보급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검증은 페인트의 온도 상승 억제와 도막 내구성을 확인한 것으로, 실제 동해 발생률이나 나무 고사율 감소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 보급과 함께 피해 예방 효과와 경제성을 확인할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사진=농진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수현 원예작물부장은 "과수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는 기존 농가에서 활용해 온 방법을 과수 재배 환경에 맞게 개선한 기술"이라며 "농업인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대한적십자사 전북도지사>

대한적십자사, 이현순 봉사원에 국무총리 표창

총 19,759시간 봉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에 헌신한 이현순 군산시협의회 개정봉사회 봉사원이 26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창립 1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개인 26명과 4개 단체에 국민훈장 동백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현순 봉사원은 1993년 6월 28일 개정봉사회에 입회한 이후 지역사회 환경정화와 취약계층 지원, 긴급 재난구호 등 총 19,759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군산시협의회 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봉사조직 운영과 활동 활성화에 힘쓰고 응급처치, 심리적지지, 노인 및 장애인 케어 관련 전문 교육도 꾸준히 이수하며 봉사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왔다.

이현순 봉사원은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한 봉사가 오랜 시간 이어졌다"며 "함께 활동해 온 봉사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김제시, 쨈매 별빛 야시장 품평회

참여자 대상 위생교육

김제시는 오는 31일 김제 전통시장부터 중앙시장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쨈매 별빛 야(夜)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먹거리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대표메뉴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지난 26일 야시장 개최에 앞서 판매 예정인 먹거리의 맛과 가격, 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식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평단은 시식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메뉴 구성과 판매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먹거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품평회 전에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의 협조로 사전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품취급 시 준수사항과 개인위생 관리, 조리·판매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참여자들의 위생관리 의식을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했다.

「쨈매 별빛 야(夜)시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전통시장·중앙시장 상인, 상권 및 청년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먹거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야시장을 조성하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품평회와 위생교육을 통해 야시장 먹거리의 품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준비하는 '쨈매 별빛 야(夜)시장'이 시민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김제시>

"황금빛 농촌 만끽, 풍성한 가을 맛 기행"

농진청, 농촌관광 촉진 행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운영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연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치유농업·체험·식문화 홍보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황금빛 농촌 산책, 풍성한 가을 맛 기행'을 주제로 가을철 농촌에서 경험하는 치유와 체험, 먹거리를 알려 농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에 농촌진흥청이 육성·지원한 전국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해 체험 활동이나 식사 후 사업장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방문 후기와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참여자 중 100명에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농업인 창업사업장에서 개발·생산한 지역 우수 농산물가공품을 기념품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수선 과장은 "우수한 농촌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현장 중심의 치유농업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농촌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예산 집행 투명성·공정성 확보 철저히"

천호성, 시설공사 특정 물품 일괄 납품 차단 및 폐교 적극 전환 주문


천호성 교육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고, 늘어나는 폐교를 '전북유학' 거주시설 등으로 적극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천 교육감은 27일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내부 부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며 감사를 표한 뒤, 학교 시설 개선 등 특교금 활용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어 천 교육감은 "시설공사와 관련해 여러 항의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같은 물건이 여러 학교에 똑같이 납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학교가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교육감은 "재산관리 측면의 보수적 접근을 넘어 지역사회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폐교의 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에서 전북유학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거주시설인 만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폐교를 전북유학 거주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총장선거 예비후보, 본격 출마 행보 2(題)

윤영상 "대학다운 대학 만들 것"


윤영상 교수

윤영상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가 제20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윤 교수는 출마 선언을 통해 '대학다운 대학, 전북대다운 전북대'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외부 지표와 평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대학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율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교육과 연구 현장으로 돌려주고 정책 결정 과정의 사전 숙의와 투명성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전북대 개교 이래 최초로 정교수 조기승진을 기록한 윤 교수는 기획처장과 공과대학 부학장 등을 지낸 대학 행정 경험과 기술창업 이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성공 허브 구축, 선택형 유급 장기인턴십 도입, 교수 연구시간 확보 및 시그니처 연구 육성, 산학협력 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교수는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구성원 곁에서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총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허강무 "전북대 몫 찾아올 것"


허강무 교수

허강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제20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돌입했다.

허 교수는 26일 출마의 변을 통해 "5극3특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재편 속에서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대거 확보해 전북대의 정당한 몫을 제대로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전북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이후에도 의대 교육·연구와 진료 체계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전북지사 인수위원회 5극3특별위원장을 지낸 허 교수는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폭넓은 정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첨단산업뿐 아니라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등 기초 학문 분야의 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허 교수는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를 집단지성으로 모으겠다"며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구성원과 함께 종합발전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사노조 "천사랑방은 범죄조직"

교육청 "법적 대응 검토"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측근 인사들의 교육청 요직 기용에 대해 도민 사과와 외부 감사를 촉구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사실무근의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대화방 '천사랑'은 천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사전선거운동 조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대화방에서 유권자 150만 명 대상 문자 발송, ARS 여론조사 개입, 포털 기사 우호 댓글 독려 등이 논의됐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교원과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화방 참여자 10명 가운데 현직 교장과 교사, 일반직 등 4명이 선거 이후 정책국장과 대변인, 5급 사무관, 정책기획과 파견교사 등 교육청 핵심 요직에 임용됐다"며 "작은 학교 살리기를 내세운 교육감이 측근 인사를 위해 현직 교장을 교육청 정책국장으로 파견해 농촌 학교(고창 신림초)의 관리자 공백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정 위원장은 "여론 방인 천사랑 방을 이끌었던 오 모 정책기획과 파견교사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될 교사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했다. 범죄자들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정재균 대변인은 "천 교육감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법도 위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새로운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여과 없이 제기된 허위 사실 유포와 과도한 비방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조치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본인의 육성이 나온 사실까지도 부정하며 국감장에서 위증을 반복했다"며 "고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

道문화관광재단×창작소극장 '벼랑 위의 오리엔테이션' 공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소극장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연극 '벼랑 위의 오리엔테이션'을 선보인다. '벼랑 위의 오리엔테이션'은 송천영 작가의 작품으로, 벼랑 끝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통해 직장 내 위계와 경쟁, 책임 회피와 생존을 둘러싼 인간의 모순을 다룬 블랙코미디다.

작품 속 벼랑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상징한다. 네 인물의 대립과 심리적 긴장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조직의 모순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책임과 연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예매는 NOL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창작소극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군산 개사동 패총 조사 '첫걸음'

서해안 고대 역사 재조명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서해안 고대 역사와 해상 교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군산 개사동 패총'에 대한 시굴조사 성과와 발굴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과거 조개껍데기가 쌓여 형성된 패각층(최대 두께 약 50㎝)과 함께 청동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 유물이 매장된 유적이다.

앞서 진행된 시굴조사를 통해 마한 시대의 큰독·시루 편을 비롯해 당시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업 경제를 보여주는 동물뼈(개·돼지·물범 등), 고대 한·일 교류의 흔적인 일본 야요이시대 토기 등이 확인되며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시와 연구소는 유적의 정확한 분포 범위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존·정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시굴조사를 추진해 발굴조사 범위를 확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 본격적인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될 발굴조사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패각층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군산 지역이 과거 서해안을 통한 고대 해상 교류의 기항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장수군 황인춘, 아시안패러게임서 메달 획득

탁구 남자복식 동메달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 탁구선수단 소속 황인춘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탁구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인춘 선수는 이번 대회 남자복식에서 짝을 이룬 선수와 호흡을 맞추며 치열한 경기를 펼친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개인전과 혼합복식에서도 각각 8강에 진출하며 여러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

메달을 획득한 남자복식을 비롯해 출전 종목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장애인체육의 도전 정신과 스포츠의 가치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박남수 지도자가 국가대표 코치로 참여해 선수의 경기력 발휘를 뒷받침했다.

박 지도자의 지도와 지원은 황인춘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펼치고 메달을 획득하는 데 힘을 보탰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인춘 선수는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수소도시 완주' 레전드리그 1위

완주군이 레전드리그 지역투어를 통해 지역 홍보에 나선 가운데, '수소도시 완주팀'이 지역투어 레전드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며 리그 선두에 올라섰다.

지난 26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린 '2026 쏘팔코사놀 레전드리그' 11라운드 1경기에서 '수소도시 완주' 팀이 '효림'을 꺾고 승리를 따냈다.

특히 이날 승리로 수소도시 완주팀은 리그 1위에 올라서며 정규리그 선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팀의 주장이자 한국 바둑의 대표 기사인 이창호 9단은 이날 대국을 통해 국내 프로기사 최초로 통산 2,000승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더욱 뜻깊은 승리를 거뒀다.

군은 이번 지역투어를 통해 바둑을 매개로 삼례문화예술촌의 매력을 알리고,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도시 완주팀의 승리와 이창호 9단의 통산 2,000승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완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GO! 군산 섬해진미' 참가자 모집
28일~11월 3일까지 신청

군산시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고군산군도 무녀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해양 미식관광 프로그램 'GO! 군산 섬해진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GO! 군산 섬해진미'는 고군산군도의 풍부한 섬 자원과 어촌 현장 체험,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결합한 군산만의 차별화된 해양 미식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늦가을 서해안의 정취와 제철 먹거리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으로 꾸며진다.

첫째 날에는 굴·바지락 채취와 통발 체험 등 어촌 체험을 통해 섬 주민들의 일상을 경험하고,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바지락전 만들기 등 쿠킹클래스를 통해 군산 바다의 신선한 맛을 직접 요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무녀도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감상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섬 힐링 쓰담걷기(플로깅)'과 천연염색을 활용한 섬 여행 기념품 만들기가 진행된다. 또한 섬 주민들과 어우러져 해물칼국수를 직접 만들고 맛보며 미식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타지역 거주 관광객 25명으로,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구강보건 이동버스
11월 소성면 주민 만난다

정읍시보건소는 오는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소성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 무의면 구강이동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구강건강 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강보건 이동버스를 활용해 전문인력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과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은 주민들의 구강검진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구강 상태와 평소 관리 수준에 맞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소도포와 치석 제거(스케일링) 등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 결과 추가 진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국화축제와 함께 즐기는
익산 신흥공원의 가을

익산 신흥공원이 다양한 가을꽃과 계절별 정원을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는 신흥공원에 구절초와 감국 등 가을 초화류를 포함해 약 5만 본을 추가 식재하는 경관특화 사업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흥공원은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리는 무대로 축제 관람과 함께 가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현재 공원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만개하고 기존 핑크뮬리원도 개화 시기를 맞아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신흥공원에 무지개정원과 수국정원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기존 정원과 연계해 공원 곳곳에 다양한 꽃을 추가로 심었다.

특히 구절초와 감국 등 가을 초화류를 식재해 계절별 꽃 경관을 확충했다.

올해 심은 가을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돼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수국을 비롯한 공원 내 다양한 화목류와 초화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계절마다 특색 있는 경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따뜻한 나눔 확산 2(題)

'㈜개성토건' 취약계층에 온정
1,000만원 기탁

익산 향토기업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익산시는 27일 ㈜개성토건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주성 ㈜개성토건 대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개성토건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 설립된 ㈜개성토건은 익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기업으로, 토목·건축·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익산 다이로움 나눔곳간 성금 기탁과 취약계층 연탄 1만 장 지원, 중앙동 침수 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 기탁, 취약계층 백미 1,100포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아이들 꿈 응원
익산지사, 20가정 지원

익산시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응원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지사장 이영건)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을 돕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와 ㈔익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가 함께 마련했다. 기탁된 상품권은 드림스타트 아동 20가정에 전달돼 학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건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장은 "지역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선희 익산시 아동보육과장은 "지역 아이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에 감사드린다"며 "상품권은 기탁자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는 2023년부터 꾸준히 드림스타트 아동을 후원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플라즈마 융합산업 육성

지역 산업 연계 및
향후 추진과제 논의

군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산 플라즈마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플라즈마 기술을 군산의 산업 기반과 연계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월 용역에 착수해 국내외 플라즈마 산업 동향과 지역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군산 플라즈마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전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플라즈마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다.

기존 제품과 공정의 기능·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주력 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군산시는 전문 연구기관인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탄탄한 연구·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을 살려 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고도화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검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이러한 과제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과제를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플라즈마 기술이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다자녀 가정 학비 부담 던다

5자녀 이상 장학금 지원
11월 3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다섯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6년 하반기 다다익산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5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로, 전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휴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총 75명을 선발해 1인당 학기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ils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제37회 정읍사문화제 '성료'

"시민 모두가 주인공…
전국적 문화축제 만들 것"

백제가요 '정읍사'의 사랑 정신을 기리는 '제37회 정읍사문화제'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통 제례와 인기가수 공연, 정읍사가요제, 다양한 체험·참여행사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첫날인 24일에는 채수의례와 정읍사 여인제례, 기념식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어 축하무대에 오른 이재훈과 신승태, 신동재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둘째 날에는 정읍사가요제 본선이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143명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명이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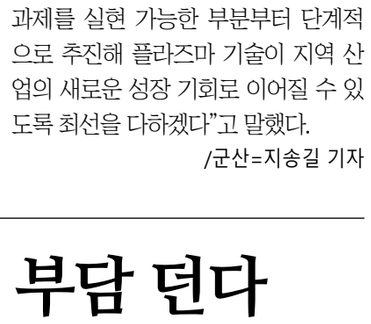
대상은 본선 1번 참가자인 김동흔 씨가 차지했다. 김 씨는 "정읍사처럼 오래도록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며 "무대에 설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초대가수 코요태와 김태연도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지며 축제의 마지막 날을 함께했다.

올해는 정읍사를 주제로 한 체험공간과 전통 먹거리장터에 더해 도장모으기여행(스탬프 투어), 백제의상체험, '달빛사랑투어' 등 다양한 참여행사가 마련됐다.

행사 공간도 아양산 달빛사랑숲과 시립미술관 야외공연무대까지 넓혀 축제를 즐기는 폭을 더했다.



<사진=정읍시>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문화제가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2026 군산불꽃축제' 11월 14일 개최
첫 민관 협력 축제



<사진=군산시>

군산문화관광재단은 11월 14일 오후 8시 군산 내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2026 군산불꽃축제 '군산의 밤을 물들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꽃쇼는 동백대교와 바다를 배경으로 음악과 함께 30분간 펼쳐진다. 축사 등 형식적인 행사 없이 오직 불꽃 연출에만 집중하며, 약 1만 석 규모의 관람 구역을 마련한다.

불꽃에는 군산만의 이야기도 담았다. 군산 앞바다는 고려 말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사용해 왜구를 격퇴한 진포대첩의 역사적 현장이다.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불꽃'에서 시민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불꽃'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연출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는 여느 축제와 달리 행사장 내에 먹거리·판매 부스를 전혀 두지 않는다. 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의 식당과 가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행사 비용도 시 예산 투입 없이 지역기업의 협찬으로 마련됐다. 군산CC 운영사인 군산레져산업(주)이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 전액을 부담한다. 이는 지난 2일 군산시·군산문화관광재단·군산레져산업이 맺은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의 1호 사업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서울에 여의도가 있고 부산에 광안리가 있다면, 군산에는 내항이 있다"며 "하늘에서 한 번, 바다 위에서 또 한 번 피어오르는 불꽃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군산 내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제를 보러 온 손님들이 맛의 도시 군산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하룻밤 머물며 쉬어 가는 것이 이번 축제의 목표"라며 "지역 상생을 위해 흔쾌히 뜻을 함께해 준 군산레져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11월 말까지 갱신 신청 접수

익산시는 오는 12월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 총 120필지(4만 1,780㎡)를 대상으로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익산시청 회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만㎡ 이하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농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미갱신 공유재산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 부과·징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AI 시대의 정읍형 사회복지 실천 방향 모색
민·관 복지 관계자 협력

정읍시는 27일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민·관 연계협력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정읍형 사회복지 실천 방향을 모색했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운용)와 임상사회복지연구회, 정읍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민간 복지 종사자 30명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0명 등 복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복지 현장의 대응역량을 높이고, 민간 종사자와 공무원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복지 실천을 주제로 한 강연과 민·관 대표 간 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복지 현장의 변화와 실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2부에서는 민·관 연합 볼링대회가 열렸다. 현장 종사자와 공무원들은 함께 경기에 참여하며 친목을 다지고 협력 관계를 넓혔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논의와 교류가 정읍시 사회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성황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중일)은 지난 24일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26 군산시 학교운영위원 하반기 연수 및 교육공동체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산 관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가족 공동체가 참석했다.

행사전 군산교육지원청 학부모합창단 "소니벨"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돋운 뒤, 개회식에서 표창장과 장학금 수여, 대회사와 격려사,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하반기 연수는'학교운영위원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의 강의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

주중일 교육장은 "이번 연수와 한마음대회가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 대동 협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스마트 농업기반 확충

AI자율주행 트랙터 시연회 열어… 농업 생산성 강화


<사진=고창군>

고창군이 27일 오전 고창읍 월암리 일원에서 첨단 농업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AI자율주행 트랙터 현장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자율주행 트랙터 도입은 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여원을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신규트랙터 8대, 기존트랙터 10대에 자율주행키트를 부착해 총 18대가 도입됐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농가에 확산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선보인 작업은 직진·회전 자동 조향, 작업기 자율작업, 전방 장애물 감지 및 긴급 정지 등 자율주행 레벨3.5 단계 수준으로 시연됐다. 관내 농업인, 농업부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첨단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실증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한 행사장에는 자율주행 키트, 무인예초기 등 첨단 농기계가 함께 전시돼 농업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비 설명은 농기계 전문업체 관계자가 직접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경작시간 단축, 생산성 증대, 유류비 절감 등 작업 효율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9기 '스마트 농업기반 확충' 목표에 맞춰 자율주행 농기계 보급 지원 확대 및 전문 조작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평생교육 정책 우수성 인정

'좋은 정책 어워즈' 우수상

김제시는 '2026년 제3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 경연대회의 '좋은 정책 어워즈 I '에서 '지역소멸위기, 배움의 공백을 채우다! - 김제시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좋은 정책 어워즈'는 전국의 평생학습도시와 교육지원청의 평생학습 정책을 겨루는 경연대회로, 평생교육사업의 기획 동기와 실행과정을 함께 평가한다. 김제시는 서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본선 발표를 거쳐 지난 24일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김제시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은 지역소멸위기 속에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김제시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그동안 읍·면 주민이 교육을 받으려면 평균 30분 넘게 이동해야 했고, 평생교육시설도 많지 않아 도농 간 학습격차가 심화돼 왔다.

이에 김제시는 평생교육시설을 새로 짓는 대신 캠핑용으로 쓰던 개조 버스를 '체험형 학습버스'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제시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지역 강사들이 이 버스를 타고 소외지역 마을을 돌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320개 마을에서 주민 3,530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지리적·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배움의 공백을 채우는 효과를 거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평생학습을 생전 처음 해 본다는 시민이 없을 때까지 달리는 모두배움터 학습버스는 계속 달릴 것"이라며 "사는 곳이 배움의 기회를 가르지 않도록 아직 버스가 닿지 않은 마을까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보건소,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도지사 기관표창'

고창군보건소가 2026년 자살예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자살예방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고창군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부터 맞춤형 상담,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5개소 운영 및 생명지킴이 1,384명 양성 △자살위기지원 59회 및 사례관리 773명 추진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창군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고위험군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처리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가 지난 2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 출범 이후 300번째를 맞은 이번 회기에서는 '미래'와 '민생'을 핵심 기조로 삼아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수 의원)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일 의원)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주상현 의원) △김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승경 의원) 등 총 5건이 가결되며 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 실증센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김제의 내일을 열어갈 신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날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보선 의원이 새만금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구)심포항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제안했으며, 장민우 의원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현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더불어 정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행정 자율성 훼손하는 미래대응 기금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지자체의 재정 재량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정자 의장은 "제300회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이번 임시회는 김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치열한 정책 검증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설치와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민생 사업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74억 793만 원 증액된 총 1조 2,476억 5,256만 원 규모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부안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57필지로, 오는 10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급식지원 캠페인

김제시는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한 아웃리치 급식지원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아침밥 먹고 학교가자'캠페인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올해는 방과 후 식사도 지원하기 위해 '얘들아!! 밥 먹고 놀자!'캠페인도 시범 운영한다.

'아침밥 먹고 학교가자'캠페인은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청소년에게 등교 시간 간편식과 음료를 제공해 기초 영양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아침밥 먹고 학교가자'캠페인은 27일 덕암중학교·덕암고등학교·덕암정보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이후 오는 29일 김제중학교, 11월 6일 김제고등학교, 11월 11일 김제중앙중학교, 11월 12일 금성중학교 순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과 후 '얘들아!! 밥 먹고 놀자!'캠페인은 11월 19일 김제중앙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교 시간 간편식과 음료를 제공해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아이돌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해바라기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

김제시는 해바라기사회적협동조합(대표 서석희)과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현서 부시장을 비롯해 서석희 해바라기협동조합 대표, 김아영 아이돌봄센터장 내정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일 개최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해바라기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이며, 위탁운영비는 고향사랑기금 7억 원과 시비 3억 5천만 원 등 총 10억 5천만 원이다. 수탁기관은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 이용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위탁사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이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자봉센터,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탐방 개최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귀)는 27일 자원봉사자 80명과 함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탐방을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탐방은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기상황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자원봉사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위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응급처치 요령을 익혔다.

이어 지진, 교통사고, 화재 등 6가지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통합재난체험과 4D 영상 체험에 참여하며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몸소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체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각자의 현장에서 활동하느라 만나기 어려웠던 봉사자들이 서로 안부를 나누고 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현장에는 따뜻한 정과 웃음이 가득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정흥귀 센터장은 "이번 문화탐방이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기본사회 선도지역 최적"

강남훈 기본사회위 부위원장 초청 행복포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를 설계해 온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북 고창을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지목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소득을 앞세워 전국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군민과 공직자 등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기본사회 이해와 지역 실천 방안'을 주제로 고창포럼이 열렸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특히 강 부위원장은 고창군이 펼쳐오고 있는 전군민활력지원금 지급, 햇빛·바람연금 추진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 등 자연과 인간의 올바른 공존을 보여주면서 공동체의 합의 분위기가 높다고 봤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차원의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며,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군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도시재생 성과 공유

옛도심 경로당 개소식

고창군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3일 '2026 고창 옛도심 도시재생 성과보고 및 옛도심 경로당 개소식'을 열었다.

옛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 변화와 주요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옛도심 어울림센터 신축건물에 조성된 경로당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고창고인돌농악단이 경로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흥겨운 농악공연을 선보이며 개소식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옛도심 도시재생 주요 성과로 근대문화유산인 조양관의 복합문화공간 재생, 신재효 판소리박물관 전시·기록·체험공간 조성, 음식치유장 및 할머니장터 조성, 모양이야기길 테마골목 정비 등이 소개됐다.

함께 진행된 옛도심 경로당 개소식은 어울림센터가 단순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주도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축제·관광자원·전통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쓸수록 혜택 늘어나는 '김제사랑카드'

29일~11월 15일까지 최대 17% 할인 혜택 제공

김제시는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지역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가 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오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와 민간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유통·서비스·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와 소비 혜택을 제공하는 전국 단위 소비축제다. 국민의 소비 참여를 확대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러한 전국적인 소비축제에 발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축제의 열기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김제사랑카드로 충전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김제사랑상품권의 12% 선할인 혜택에 5% 캐시백이 더해져 시민들은 최대 17%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캐시백 이벤트가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민관 협력 돌봄 강화 2(題)

주민돌봄지원센터 개소…생활밀착 복지 지원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평화)가 27일 완주 소셜굿즈 창업스테이션 너나들이실에서 '완주군 주민돌봄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맞춤 복지와 통합돌봄 연계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11년부터 이어온 주민돌봄지원센터는 장보기와 물품 전달,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체감형 복지 거점이다.

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장보기, 물품 전달, 병원·약국 동행, 행정업무 지원,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군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센터가 어르신과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완주군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손잡고 통합돌봄 공백 메운다

완주군이 지역 내 민간기관과의 끈끈한 소통과 협력을 발판 삼아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잇는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돌봄 대상자들의 다채로운 복지 수요에 촘촘히 대응하고자 완주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내 핵심 민간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정기 통합지원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대상자의 형편과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기관별 보유 자원과 전문 사업을 적재적소에 연계하며 돌봄 공백을 메우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민관 협력은 병원 동행부터 주거환경 개선, 위생과 식생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상 전반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병원 동행과 간단 집수리, 정리수납 서비스를 엮어 대상자의 쾌적한 일상을 돕는다.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주민돌봄지원서비스를 통한 병원 동행을 비롯해 통합돌봄 특화사업인 '완주애(愛) 기저귀 지원사업', 취약계층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복지를 펼치고 있다.

군은 특정 기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 난제를 다른 기관의 자원과 즉시 맞물려 해결하는 등 상호 보완형 연계 체계를 다져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이상기상 대응 포도 생산모델 구축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2027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에 선정돼 2027~2028년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고랭지 포도 안정생산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남원 고랭지 포도는 아영, 인월, 운봉, 산내면 등 4개읍면 400여농가가 재배하는 지역 대표 작목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저온·고온 등 이상기상으로 홍과와 착색불량이 반복돼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돼 왔다.

센터는 이를 위해 수년간 해결책을 모색하며 센서에 기반한 적정 물관리 실증연구와 냉온풍기·순환팬 등 피해경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적용한 기술의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하고, 농가별 경험에 의존하던 재배관리를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년에는 실증농가 10여개소를 중심으로 환경·관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관수와 이상기상 대응 기술을 검증한다.

2028년에는 결과를 분석해 최적 환경관리 기술을 보급하고 생육단계별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후에 농촌진흥청·전북농업기술원·농업인·전문가와 협력해 온도·습도·토양수분·생육·품질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재배 매뉴얼로 정리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사랑의 헌혈 진행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 나서

남원시는 전북혈액원과 협력해 오늘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이동용 헌혈차량 4대를 활용해 시청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보건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동시에 운영된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헌혈 전날에는 음주를 자제하고 최소 4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하며, 2식 이상 공복 상태에서는 헌혈이 제한된다. 헌혈 당일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헌혈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헌혈을 통한 혈액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응급환자와 중증질환자들이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할인 17%로 확대…8억원 한정

10월 29일~11월 15일 특별 할인 기존 12%에 5% 추가 캐시백 제공

순창군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순창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기존 12%에서 1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율 상향은 범부처 합동 할인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는 기존 12% 할인 혜택에 5%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총 1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0만원이며,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발행 규모는 총 8억원이다.

다만 할인 적용 방식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구매금액의 12%를 캐시백으로 적립하고,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이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기존 12% 캐시백 방식이 선할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상품권 구매 시 12%를 즉시 할인받고, 5%는 추가 캐시백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특별 할인은 추가 할인 발행액 8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되며, 소진 이후에는 기존 할인율이 적용된다.

군은 이번 할인 혜택 확대가 군민들의 상품권 이용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11월 1일~12월 16일 비상 체제 산불감시 인력 110명 현장 투입

완주군이 건조한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고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

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산림재난대응단 4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등 총 110여 명의 전문 감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불법 소각 행위와 입산 통제 구역, 통행 제한 등산로를 집중 감시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마을 방송과 순찰을 병행해 주민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을 뿌리 뽑고자 취약 시간대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산불 조심 깃발과 펼침막(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어 위험성을 알리고,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한 대비 태세도 갖춘다. 산불진화차량 12대와 기계화 진화 시스템, 등짐펌프 등 각종 진화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장비를 추가 확충한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한 상황 전파와 현장 진화가 이뤄지도록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송기철 산림녹지과장은 "가을철은 산불 최고 위험시기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박대길 위원 초청 '전승전과 이순신' 인문학 특강

순창군은 지난 26일 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박대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을 초청해 '전승전과 이순신'을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군립도서관이 운영하는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끈 주요 해전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전략적 판단과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박대길 위원은 우리역사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는 등 역사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강연에서는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대첩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이 거둔 주요 승리의 과정과 배경을 살펴봤다. 특히 한산도대첩에서 활용된 학익진 전술을 비롯해 전투 상황에 따른 전략적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승리로 이어진 과정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기록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며,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을 다했던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조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군민들이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업적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인문학적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식품·공중위생업 단체와 소통 간담회

외식·이용·미용·숙박업 현안 공유 디저트 카페 특화거리 조성 등 건의

남원시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양충모 남원시장이 관내 식품·공중위생업 관련 단체 대표들과 소통행정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식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등 4개 업종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의 운영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식품·공중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모범·우수업소·착한가격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위생용품 지원, 일회용 앞치마를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남원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용컷트 보 지원, △예가람길 중심 디저트 카페 특화거리 조성, △관내 일반음식점 일회용 앞치마 지원 △숙박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다.

시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나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양충모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식품·공중 위생업계의 업종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연중 접수

15개 이상 점포 밀집 구역 대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순창군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관내 상인조직으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인조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이 확대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 상품권 이용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골목상권의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안심귀가망 강화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최정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비봉면 자율방범대와 손을 잡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밤길 귀가를 돕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보살피는 촘촘한 돌봄망을 한층 강화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안심귀가 지원서비스 협력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 및 협력 △비봉자율방범대 활동 상호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 봉동읍·봉동읍 둔산리·용진읍 자율방범대와 맺은 협약에 이어 이번 비봉면까지 더해 관내 4개 방범대와 끈끈한 귀가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

최정선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3분기까지 화재 전년比 13.6% 증가

산업시설 재산피해액 12억 80.7% 담배꽁초 등 부주의성 41% 증가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올해 3분기까지 관내 발생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125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화재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보다 15건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7명 등 총 8명으로 전년 대비 2명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약 14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억 4,800만 원(17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5건(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37건(29.6%), 기계적 요인 16건(12.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주의 화재는 지난해 39건에서 올해 55건으로 41% 증가했다. 세부 원인으로는 담배꽁초와 불씨·불꽃 방치가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도 9건 발생해 일상생활 속 작은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야외가 3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23건(18.4%), 주거시설 22건(17.6%) 순이었다. 특히 산업시설 화재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23건으로 130% 증가했으며,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약 12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의 80.7%를 차지했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산업시설 관계자들에게 △노후 전기설비 및 배선 정기점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가연물 주변 화기 사용 금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시설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026년 전국 소방가족 힐링캠프 운영

남원시는 소방청·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2026년 전국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한 근무 여건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소방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소방공무원과 가족 등 31가족, 총 114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남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항공우주천문대 체험, 피오리움 미디어아트관람, 광한루원 야경 관람, 화인당 한복 체험 등이 마련됐다.

최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와 대형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캠프는 소방가족의 심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방가족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고 남원의 관광·문화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제119주년 추모제 거행

진안군은 27일 마이산 남부 호남창의동맹단 의병 위령비 앞에서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9주년 기념 호국제전 추모제'를 엄숙히 거행했다

호남의병창의호국제전위원회(위원장 박주홍)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진안군의회 의원, 김상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제전위원회원, 군부대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호남의병 창의동맹단을 이끈 정재 이석용 의병장의 후손 이정하, 이규 씨가 자리를 함께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정신 계승의 뜻을 더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전북에서 살아보기' 수료생 배출

무주군 안성면 솔다박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된 '2026년 전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됐다.

'전북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영농 활동과 지역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귀농귀촌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기, 8월부터 10월까지 2기 과정이 진행됐으며 각 5명씩 총 10명이 △영농체험을 비롯해 △농작업 실습, △지역 탐방,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 △마을 주민과의 교류, △지역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을 경험했다.

수료생들은 "무주에서의 경험이 막연했던 귀농귀촌의 꿈을 현실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잘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호흡기 감염병 유행 철저한 예방 당부

최근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독감 예방접종 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임실군은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절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 속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및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하루 3회(매회 10분 이상) 실내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및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받기 등이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대상자별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시기에 알맞게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동참해야 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총력

무주군·전북도·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대응 방안 모색

무주군이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7일에는 전북연구원 별관 콘퍼런스 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연구원과 함께 '시군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강미경 무주군청 산업건설국장과 권민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김상엽 전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김상엽 기획경영실장은 '동서 3축 고속도로 완성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갖는 의미와 이를 통한 지역 발전 효과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논리 보완과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미경 무주군청 산업건설국장은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영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를 확보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이 함께 역량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나아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국가계획과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무주에서 경북 성주·칠곡을 거쳐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84.1㎞, 4차로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 3천9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이다.

도로가 조성되면 △동서 간 간선도로망 확충은 물론, △지역 간 이동 편의 및 물류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덕유산·구천동·태권도원 등 무주 관광자원과 대구·경북권 관광자원 간 연계도 강화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발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 가시엉겅퀴, 지역 성장동력으로

지역 농특산물 특화자원 육성 재배·가공·상품화까지 연계



임실 가시엉겅퀴를 활용해 개발한 다양한 제품들 <사진=임실군>

임실군이 지역 대표 자생 약용식물인 '임실 가시엉겅퀴'를 고부가가치 농식품 자원으로 육성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간다.

군에 따르면 최근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생약용식물인 가시엉겅퀴를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브랜딩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계약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특허받은 성분강화 재배 기술을 적용하고, 원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표준화 생산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약 2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생육 시기와 식물 부위별 성분 변화를 분석한 이른바 '엉겅퀴 성분 지도'를 마련해 원료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같은 연구기반을 토대로 원료의 재배와 선별, 가공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시 엉겅퀴 특화자원 육성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브랜딩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지역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가공과 상품화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하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식품 원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표준화,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살피고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성 원료 개발과 제품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시장을 넘어 더 넓은 판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가시엉겅퀴를 비롯한 지역 특화 농식품 자원의 연구·가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마음 행사 개최

농가주·근로자 등 800여명 참석 우수 농가·근로자 군수 표창

진안군은 지난 26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리고 관내 결혼이민자 등 8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군에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영농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를 2022년도에 155명, 2023년도에는 390명, 2024년 558명, 2025년 771명, 2026년에는 1,011명을 도입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파종기에 맞추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한기에 접어드는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진안군에서는 이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이웃으로 함께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MOU 체결국 계절근로자 600여 명과 농가주 및 관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200여 명이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오후 4시에 열린 기념식에서는 계절근로자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신 진안읍 빈현수, 마령면 전선환, 용담면 강영신, 주천면 무릉팜, 동향면 안창현이 우수농가로 선정되어 진안군수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청정진안의 맛 좋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근로자를 각 국가별로 선별해 표창이 주어졌다.

기념식을 마치고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차려진 만찬과 장기자랑에서는 계절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틈틈이 준비한 단체 댄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국의 가요 등을 부르며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지진안전주간 운영

군민 지진 대응 역량강화

장수군은 지진 대비 역량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2026년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진안전주간은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규모 5.8)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범국민 안전 캠페인이다.

군은 올해 '지진, 흔들릴 때는 탁자 밑! 나갈 때는 계단!'을 슬로건으로 군민이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쳤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지진안전 전용 누리집(www.지진안전.com)을 통한 행동요령 안내와 인증사진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아동과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매체와 리플릿을 활용해 △몸 낮추기 △머리 보호하기 △안전한 이동 등 기본 대피 동작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장수군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와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도 병행해 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보건의료원, 오후 6시까지 운영

11월부터 진료시간 변경

임실군보건의료원은 내달 1일부터 진료시간을 기존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은 농번기 영농철을 맞아 4월에서 10월까지 주민 편의를 위해 평소보다 30분 앞당겨 오전 8시 30분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11월부터 영농철 종료와 동절기(농한기) 진입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진료 시간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접수 및 진료가 시작되며, 점심시간(오후 12시~오후 1시)을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민원 업무와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진안군의회는 27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제도만으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예산·결산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종수 임실군의원, 버스운행체계 개편 촉구

임실 특성에 맞춰 운행체계 마련



임실군의회 김종수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버스운행체계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용객이 적은 구간에서도 노선버스 운행이 지속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콜버스 역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운행으로 교통편의 향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9월 전남 영암군 콜버스 운영현장을 방문해 실시간 AI 기반 배차 시스템을 살펴봤다. 영암군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고정노선과 수요응답형 버스를 병행하고, 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영암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임실군의 생활권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시간과 지역에는 버스를 집중 배치하고, 수요가 적은 곳에는 행복콜버스를 활용하는 등 두 교통수단을 탄력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관성적인 버스 운행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주민자치 발전 협력·지원방안 논의

장수군의회는 지난 22일 (사)지역농업연구원이 주관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수군의회 정상득 의장과 김광훈 의원은 임실군의회, 군산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장수군과 군산시의 주민자치 관련 준비 현황, 임실군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등을 공유하며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행정과 의회, 주민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발안 조례 등 주민의 자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수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주민자치회가 지역 실정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남원시·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교류행사 개최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4일 자매도시인 사천시를 방문해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이번 견학은 소상공인 간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의 역할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자매도시인 사천시를 방문함으로써 두 지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소상공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상남 회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이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오명석 엠에스오팜 대표, 부안군에 장학금 기탁

2019년부터 매년 500만원 "작은 정성이 학생들 앞날에 도움 되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주)엠에스오팜 오명석 대표가 부안 학생들의 꿈과 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의 나눔은 오랜 시간 한결같이 이어져 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CMS 정기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을 별도로 기탁해 오고 있다.

해마다 이어지는 500만 원의 기탁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데 힘을 보태는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꾸준한 약속이기도 하다.

오명석 대표는 "부안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훗날 지역사회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작은 정성이 학생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완주 어린이집 천사들 함께 모은 성금 150만원 기부

전주와 완주 지역의 3개 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과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세안어린이집은 27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기차와 회전목마 등 놀이동산 운영과 프리마켓 등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3개 어린이집의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전주와 완주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놀이 등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이웃돕기로 이어가면서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김제시 출신 공무원 두 명, 후배 위해 장학금 기탁

고재경·홍다열 주무관

김제시의 교육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온 지역 출신 인재들이 이제는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다.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지난 26일, 고재경 주무관과 홍다열 주무관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재경 주무관은 김제시 공무원 시험준비반을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홍다열 주무관 역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인연을 맺은 지역 인재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김제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역 후배들에게도 이어가고자 이번 기탁에 뜻을 모았다.

고재경 주무관은 "김제에서 꿈을 키우며 받았던 관심과 응원을 후배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홍다열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한누리꽃&fruit 박광순 대표 장수군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은 한누리꽃&fruit 박광순 대표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광순 대표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기탁금에 담았다.

박 대표가 이번기탁에서 보여준 따뜻한 응원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박광순 대표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장수군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기부를 결심했다"며 "학생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고, 재단의 다양한 장학혜택과 지원사업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동향면 공무원들, 농가 일손 돕기

진안군 동향면은 하반기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27일 동향면과 관계부서인 기획홍보실, 재무과 15여 명이 동향면 하향마을과 내금마을 2개 농가를 찾아 약 800평의 고추 지주목 제거 및 적채작물 비닐 제거 등 작업을 지원하여 일손을 보탰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으며, 계절적 특성상 봄철과 가을철 농번기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만 농촌 내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일손 부족으로 농가경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직접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촌의 현실과 농업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전길빈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고창 수해복구 지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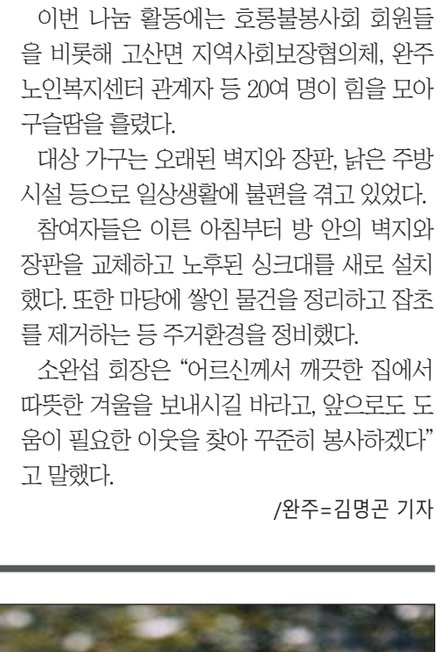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현주)가 지난 26일 고창군청을 찾아 '고창지역 집중호우(8월30~31일)'의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수해복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등 생활 터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주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빛원자력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빛원자력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호롱불봉사회 고산면 홀몸 어르신 집수리 봉사

완주군 호롱불봉사회가 최근 고산면 부동마을의 홀몸 어르신 가구를 찾아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 활동에는 호롱불봉사회 회원들을 비롯해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완주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힘을 모아 구슬땀을 흘렸다.

대상 가구는 오래된 벽지와 장판, 낡은 주방시설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 안의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노후된 싱크대를 새로 설치했다. 또한 마당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주거환경을 정비했다.

소완섭 회장은 "어르신께서 깨끗한 집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一事一言〉



청년 55% 지방 취업 의향. '조건 미스매치' 깨야 전북 청년 잡는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안일한 '지방 기피' 핑계 넘어서야

지방소멸의 거센 파도 속에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직면한 가장 아픈 현주소는 청년들의 끊임없는 수도권 이탈이다. 그동안 행정과 산업계는 청년 유출의 원인을 단지 '지방이라는 공간적 한계'나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 탓으로 돌리며 안일하게 위안을 삼아온 경향이 컸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통념을 정면으로 뒤엎는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서늘한 진실을 말해준다. 구직 청년 중 과반이 넘는 55%가 "근로 조건만 맞다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 55%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청년들은 결코 고향을 무작정 버리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의 살인적인 집값과 삭막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방을 등지는 진짜 이유는, 지방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부실한 복지,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청년들의 '지방 기피'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조건 미스매치'에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각 시·군이 추진해 온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정작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신음하는 지방 중소기업에 단발성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청년들에게 몇 달짜리 임시 공공 일자리를 쥐여주는 일차원적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한두 달 견디다 떠나는 임시 거처가 아니라, 합리적인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장기적으로 정주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터'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산업계는 청년 55%의 신호를 엄중한 기회로 삼아, 지방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3대 대혁신에 착수해야 한다.

임금 격차 보전 주거·복지 패키지로 일자리의 질적 대전환 이루어내야

첫째,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메워주는 '전북형 청년 임금 격차 보전' 정책의 신설이다.

지방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수도권 기업만큼의 초임 임금을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파격적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실질 수당, 세제 혜택 등을 결합하여 수도권 중견기업 못지않은 '실질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책임지는 '주거·교통·문화 통합 복지 패키지'의 구축이다.

청년들이 지방 취업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내 복지와 주변 생활 인프라의 부재다. 도내 주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청년 안심 주택, 셔틀버스 및 교통비 지원, 사내 복지 포인트 공유제 등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 기업 홀로 담당하기 어려운 주거와 복지망을 행정이 든든하게 받쳐줄 때, 청년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셋째,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직무 역량 강화 사다리 형성이다.

단순 노동 인력을 메우는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와 연계해 첨단 미래 산업(농생명 바이오, 그린수소, 첨단 소재 등) 분야의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교육·승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일자리 질이 뛰어난 우수 기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이들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청년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채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청년 55%의 응답은 우리에게 아직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의 눈높이를 탓하던 게으른 행정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할 맛 나고 머물고 싶은 일터를 다져주는 데 도정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80%의 희망적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20%의 미스매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임금·복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 전북의 청년들이 고향의 기업에서 내일의 꿈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이 합심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

사 설

악성민원 대응, 학교장 앞세우고 교육청은 뒤에 설 것인가

학교 현장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은 더 이상 개별 교사나 학교장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내놓은 악성민원 대응책은 정작 일선 학교장에게 퇴거 요구와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역할을 맡기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교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갈등의 최전선에는 학교장을 세운 셈이다.

물론 학교장에게 즉각적인 대응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필요하다. 악성민원인이 학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신속하게 제지할 법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학교장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한 뒤 발생하는 갈등과 법적 분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교장은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책임자다. 악성민원에 강경하게 대응했다가 보복성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청이 대응 권한만 강조하고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현안관리 책임자 지정과 중대사안 협의회 운영 등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구의 명칭이나 지원 약속이 아니다. 교육청이 악성민원을 직접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해야 한다.

정당한 학부모 민원과 악성민원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교육활동 침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균형 잡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교권 보호는 학교장의 개인적 결단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 교육청이 법률지원과 분쟁 조정은 물론 중대한 악성민원에 대한 직접 대응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장이 홀로 학부모와 맞서는 구조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만큼 자신이 져야 할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학교장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교와 교직원의 든든한 방패가 되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의 시

들꽃처럼 / 조 병 화

들을 걸으며
무심코 지나치는 들꽃처럼
삼삼히 살아갈 수는 없을까

너와 내가
서로 같이
사랑하던 것들도
미워하던 것들도
작게 피어난 들꽃처럼

지나가는 바람에
산들산들
삼삼히 흔들릴 수는 없을까

눈에 보이는 거,
지나가면 그뿐

정들었던 사람아,
헤어짐을

아파하지 말자

들꽃처럼, 들꽃처럼,
실로 들꽃처럼

지나가는 바람에
산들산들
아무것도 없었던 거처럼
삼삼히, 그저 삼삼히

시인 약력 : 1921년 경기도 안성 출생, 1940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 고등사범학교 물리화학과를 졸업했다. 경성사범학교, 서울고 교사에 이어 경희대 문과대 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문학상, 금관 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시집으로 '하루만의 위안', '인간고도', '공존의 이유'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2003년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 독자투고 |

"당신 이름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그 링크, 누르는 순간 끝이다



"검찰입니다. 등기우편을 안 받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곧이어 인터넷 주소 하나를 보낸다. 접속해 이름을 넣자 화면에 내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이 뜬다. 사기범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며 돈을 옮기라고 지시한다. 최근 세종에서 검거된 조직은 이 수법으로 68명에게서 31억 원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은 뉴스를 먹고 자란다. 이달 초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문을 연 지 닷새 만에 사칭 범죄에 이름을 도용당했다. 생소한 신설 기관이라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도 미끼가 됐다. 사기범은 금융사를 사칭해 "해킹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계좌가 위험하니 확인하라"며 개인정보와 송금을 요구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명의로 '전자 사건 통지서'를 열람하라는 가짜 메일도 돈다.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가 깔리고 휴대전화는 범인의 손에 넘어간다.

피해는 갈수록 커진다. 지난해 피해액은 1조2,578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그 대부분이 기관 사칭형이었다.

그러나 수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나 문자, 메일로 영장을 보여주지 않는다.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재산 검사를 이유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요구받았다면 100% 사기다.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확인해야 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곧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범이 노리는 것은 판단력이 아니라 공포다. 한 번 끊고, 한 번 확인하는 용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킨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박재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만금 팸투어, 8회 대장정 마무리

인스타·틱톡·유튜브 등 SNS 직접 홍보 650건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 쇼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전북특별자치도와 로컬콘텐츠연구소(대표 손안나)는 '2026년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이하 새만금 팸투어)를 지난 6월부터 모두 8회의 일정으로 진행해왔다.

지난 24일에는 수도권 거주 걷기동호회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고군산 일대의 섬(비응도,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에서 '선유도 구불길 플로깅'이란 주제로 실시했다.

이로써 2026년 새만금 팸투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2026년형 새만금 팸투어의 특징은 먼저 서울에서 와도 당일 코스로 충분한 하루짜리 코스 중심으로 짜였다는 것이다. 총 8회의 일정 중 6회가 당일코스였다.

또 하나는 수도권 거주 전문가 - 여행작가, 수도권 역사문화 해설사, 공공기관 서포터즈, 학교 선생님 등 - 중심으로 투어팀을 모집하여 맞춤형 투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시대 2천만명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새만금 관광명소의 글로벌화에 이바지할 외국인 유학생을 20% 가량 모집했다.

이와 같은 내실 있는 전략적 투어 운영결과 예년 이상의 큰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를 요약하자면 참여 인원은 매회차 25명 이상의 홍보영향력이 큰 여러 전문가 그룹과 활동적인 인플루언서로 모집했고, 이중 37명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 유학생들이었다.

이들 유학생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명소 글로벌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팸투어에 참여한 학교 선생님들과 걷기 투어 그룹인 해피허브 소속 선생님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쇼핑과 단체 주문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 구매에 모두 참여하는 등 소액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홍보효과도 탁월하여 인스타, 틱톡,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하여 (1~7회까지) 650건 이상 직접 홍보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참가자 1인당 3회 이상의 홍보활동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성공적 투어 운영은 '지평선 너머 새만금 맛 여행'이라는 선명한 주제를 내세우고, 새만금 인근 3개 시군에 산재한 역사 유적지, 경치가 아름다운 곳,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두루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진행팀의 전문적인 투어 운영 역량도 한몫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 운영자인 로컬콘텐츠연구소의 손안나 대표는 "새만금 인근 3개시군 팸투어'를 통해 새만금 간척지와 그 배후의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많은 유적과 다양한 문화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문화자산으로 키워 전 세계인이 찾는 K-관광의 성지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정철 기자

